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인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진리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로새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교회의 사서실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노광원 편집국장: 조순진

목회자 영성계발을 위한 제1회 전국 목회자 단기 세미나

‘현대교회: 복음과 리더십의 회복’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충현교회 본당에서

미지의 세대인 2천년대를 앞두고서 한국 교회는 최근 ‘얕은 성장과 깊은 침체’라는 막대한 과제를 안고 몸부림하고 있다. 이 많은 몸부림을 거듭하면서 우리들이 찾은 본래의 자리는 ‘복음과 그 능력의 회복’이라는 생의 근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의 교회들은 여전히 즉각적인 결과를 낳을 법한 유행적 프로그램과 임시적 목회 방법들의 주도적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형편이다. 복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경쟁 결과주의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다.

이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사를 따라 복음의 회복과 보수적 개혁신앙을 강조하고 사수해온 우리 교회는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전국의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현대교회: 복음과 리더십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제1회 전국 목회자 단기세미나를 실시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사를 흠여져 있는 자제들과 나누고 한국 교회가 다시금 절찬된 복음적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열망하는 것이다.

급변 세대인의 주장은 작은 청지기 훈련시에 큰 호응을 얻었던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원의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 트렘버 몽텐 3세 및 피트 앤스이다. 그리고 본 교회의 원로 및 위임목사와 협동목사들이 주요 주제강의들을 맡게 될 예정이다.

급변 세미나는 전국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충현의 성도들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한국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교회의 큰 뜻을 따라 모든 성도들은 적극 마음을 모아 집중된 기도와 관심, 그리고 홍보를 위한 열심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 대상: 전국의 목회자

(담임 및 부교역자)

* 날짜: 2월 22일(월) - 24일(수)

* 장소: 충현교회 본당

* 회비: 1인 3만원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들은 교육국 (교육관 1층)에서 자세한 단편을 얻을 수 있다(구내전화 473번).

* 감사:



T. 홍택 목사
‘다원교회 통해 본 구약’



P. 옌스 박사
‘로마교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회’



김형인 목사
‘목회자의 자질’



김성관 목사
‘리더십’



윤영택 목사
‘하나님백성의 공동체와 리더십’



노봉민 목사
‘현대 교회의 복음적 선교’



박형목 목사
‘예배소리를 통해 본 복음과 교회’

알립니다

남녀전도회 98년도 하반기 회개감사

기간: 1999. 1. 10 - 1. 31

시간: 매주일 오전 10:30-12:30

오후 15:00-16:30

장소: 신교동 4층 전도위원회실

준비서류: 금전출납부, 원장,

회개장, 영성서찰 2장(98. 7. 1-12. 31),

통계장, 증명서철

제2회 전국 찬양대지도자강습회 2월 3일부터 6일까지 본교회 성도들은 오늘까지

기도하는 전로 성악가들을 통해 발생 등 성악에 대한 강습을 받고 보다 아름답고, 영성이 넘치는 찬양을 부르기 원하시는 본 교회 성도들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주일

우리 세대 선교 과제: 기근의 땅 아프리카를 주제로

우리의 기도와 헌금이 땅 끝에 심기는 복음의 씨앗되길
27일 스리랑카, 28일 인도 단기선교팀 출발



오늘 선교주일을 맞아 각 부서에서는 지원선교사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고 선교헌금을 작정하여 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1-부부예배시에도 순 성도가 선교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유아부 어린이들부터 성도부 어른에 이르기까지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입술을 모아 드리는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하여 바치는 선교헌금은 땅 끝까지 뿌려져 열매를 맺는 복음의 씨앗이 될 것이다. 우리가 힘써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르시고 거두실 것이다. 특히 선교주일에는 기근의 땅 아프리카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 세대에 맡겨진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집중된 사역을 전개하는 한편,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을 통한 담임이 선교를 계속적으로 확장과 시키기까지 방침이다(관련기사 4, 5번).

한편, 이번 주 27일(수)에는 스리랑카팀이, 그리고 28일(목)에는 인도팀이 각

각 단기선교를 위해 선교 현지로 출발한다. 스리랑카팀은 27일 출발하여 2월 6일 귀국할 예정이며 총 11명의 대원이 콜롬보와 마타라, 캔디 등에서 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축조전도 및 대학캠퍼스 노방전도, 지척조사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총 14명으로 구성된 인도팀은 28일 출발하여 2월 8일 귀국할 예정인데, 이 기간 중 필리핀에 있는 찬양대팀을 거점으로 하여 시크고의 본산지인 파티알라에서 복음을 전할 예정이다.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겨울성경학교 및 수련회

유·초·소녀부는 25-28일 교회, 중등부는 25-27일 기도원에서 부모들의 적극적인 협력 필요

유·초·소녀부는 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에 걸쳐 교회에서 겨울성경학교를 진행한다. 매년 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학부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 가운데 아름답게 진행되어 왔던 겨울성경학교가 금년에는 목회자세미나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한 달 정도 앞당겨 실시되게 되었다. 학부들의 더 큰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중등부 역시 유·초·소녀부

와 같은 이유에서 날짜를 앞당겨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겨울수련회를 실시하게 된다. 장소는 충현기도원이다. 학부들은 금년 겨울성경학교를 맞아 자녀들을 격려하여 잘 참석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교역자의 말씀 전포와 교사들의 섬김,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다.

14교구 농어촌전도대 겨제 해금강 영광교회로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14교구는 지도 전행훈 목사 외 17명의 성도로 구성된 농어촌전도대를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거제도 해금강 영광교회로 파송하여 겨울성경학교 및 사경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로 하였다.

겨제 주인의 영혼 구원과 신앙의 성숙을 목표로 하는 14교구 전도대는 이른 새벽기도회뿐 아니라 어린이 새벽기도회도 가진다. 신앙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힘써 예정이,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겨울성경학교에 참석하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신앙의 기쁨을 가르칠 예정이다. 그리고 의료활동과 축조전도를 병행하여 사경회가 속한 마을 주민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복음으로 초청하여 뜨거운 부흥사경회를 가질 예정이다.

금년 행사를 통해 겨제 주민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해금강 영광교회가 겨제 복음화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전도위원회 '99 일꾼영성훈련 1월 29-30일 기도원에서

전도위원회는 29일 밤 금요집회 후부터 30일 오전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일꾼영성훈련을 실시한다. 전도위원회 임직원 및 남녀전도회 연합회장, 부회장, 그리고 직능전도회장단 등 약 8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될 금년 영성훈련을 통해서 전도위원회는 99년도 한 해 동안의 모든 전도위원의 활동들이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림받아 큰 열매를 맺도록 힘써 기도할 예정이다. 금년 영성훈련의 강사는 전도위원회 지도 김세철 목사이다.



김창인 목사

구원받은 선민이 누리는 축복

(이사야 35:1-10)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영혼의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지면 만가지의 이치를 보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자신의 책임을 깨닫게 됩니다.
악마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1.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사람이 죄에서 해방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을 받는 시작입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는 만 가지 복을 받았어도 다 헛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시작이 죄를 용서받아 무서운 형벌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죄에서 해방이 되면 사람의 육신도 종로 부러 먹지 못하도록 해방이 됩니다. 유다 백성이 죄를 범하므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불리침을 받게 되고 개인이 죄악의 종이 되고 나라가 바벨론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유다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으니가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복된 길이 열렸습니다.

2. 땅이 복을 받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발하같이 피어 즐거워하며”(1절)
사람이 복을 받으면 땅도 복을 받습니다. 유다 백성이 고국을 떠날 때에는 사막이요, 메마른 광야였었는데 그 땅이 기름진 옥토로 변하는 복을 받았습다. 한때 유다 백성이 그 땅을 빼앗겼고 그 세대로 흩어진 후에 젖과 꿀이 흐르던 가나안 복지가 메마른 사막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자마자 땅이 다시 옥토로 변하고 있습니다.

3. 식물이 복을 받습니다

“... 레바논의 영광과 갈렙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2절)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영광’이라는 말은 레바논이 다시 백향목으로 하늘에 닿듯이 웅장한 삼림을 이루겠다는 말입니다. ‘갈렙의 아름다움’이라고 하였는데 갈렙은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아름다워진다는 말은 곡식이 풍요해진다는 뜻입니다.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사론은 강기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에는 백향목이 하늘에 닿도록 세목이 웅장하고 갈렙의 곡창에서는 곡식이 쏟아져 나오고 사론에는 아름다움 꽃이 만발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모든 투쟁의 시작지대라 목초지의 꽃들로 뒤덮인 아름다움 평야와같이 변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4.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 그것들이 여호와와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니”(3절)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꽃 한송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신령한 눈이 어두운 자는 바로 보지 못하나 복작에는 저를 생애가 없습니다. 마음이 바른 사람이야 사물을 옳게 보고 옳은 판단을 합니다. 저와 여러 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5. 사람과 환경이 변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변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기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나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신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3-4절)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라는 말은 용기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일할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떨리는 무릎이 굳게 되며’, 즉 겁내던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인격이 새로워집니다.

이 내용을 다시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니 커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맹어의 혀는 노래하리니...”(5-6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소경이 영혼의 눈으로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지면 만가지의 이치를 보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자신의 책임을 깨닫게 됩니다. 악마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영의 귀가 열립니다. 바나사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립니다.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혼의 귀가 열립니다.

“저는 자란 마름대로 일을 못하는 자란 되었습니다. ‘시슴같이 될 것이라’란 선한 일을 할한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선한 일을 할만 하고 행동하지는 못하였는데 지금은 행동으로 갈행한다는 뜻입니다. ‘맹어의 혀는 노래하리니’ 전에는 기도하라고 눈을 감아도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고 눈을 떠도 찬송의 입이 열리지 않더니 은혜를 받으니까 찬송도 기도도 잘 나오고 전도도 잘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2) 환경이 변화됩니다

“...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와 물을 얻으리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사막의 돌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6-7절)
첫째, 사막에 물이 흐릅니다. 사람이 하

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주위 환경도 변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물이 솟게 됩니다.

둘째, 사막이 변하여 원천이 됩니다. 일 년 열두 달 햇빛만 쬔채 내리던 뜨거운 사막에 언제 비가 와서 땅이 굳어졌는지는 몰라도 큰 바다 같은 곳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이적입니다. 땅 속 깊은 곳에서부터 생이 터져서 많은 곳에 물을 공급해줍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사막 같은 사람으로서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나 그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 그를 통하여 천사만 한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개인이나 교회는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5년, 10년을 지내면서 보면 세계에 유익을 주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광야가 변하여 목장이 됩니다. “시방은 우리 나라의 늑대와 같은 짐승입니다. 이런 맹수들이 우글거려던 숲에 풀이 난다는 말은 양을 칠 만한 목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늑대가 왕래하던 곳이 좋은 목장이 됩니다. “...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갈대와 부들은 과피루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필요한 공산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발달시킬 수 있는 제초가 나섰다는 말입니다.

넷째, 거룩한 길이 생깁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였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은은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있어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였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8-9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개인과 교회와 민족의 앞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 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한 길이라는 말은 죄를 범하는 자는 다닐 수 없는 순결한 길이란 말입니다. 이 거룩한 길은 다닐 자가 누구입니까? 첫째로, ‘구속함을 입은 자들’, 즉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길로 다니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과거에 천만, 만 번 죄를 범한 자라도 회개하여 용서를 받으니까 이제 ‘거룩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우매한 자는 거룩한 길로 다니지 못합니다. ‘우매’는 미련입니다. 미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미련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죄를 범하고 그것을 거짓말로 숨기는 것이 미련입니다. 미련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고 미련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담비

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길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는 미련한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죄를 범하고 그것을 거짓말로 숨기는 자는 참으로 불쌍한 자입니다.

6. 빼앗겼던 땅에 돌아옵니다

“여호와와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도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화관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니”(10절)

하나님의 속량함을 받은 백성이 시온으로 돌아오는데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첫째로, 입에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이 열어 놓아 주신 그 거룩한 길을 걷게 되고, 그 길을 걷는 자의 입에는 노래가 나옵니다. 둘째로, 머리에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머리에 위에 영영한 화관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일등 모자입니다. 셋째로,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쁨’이란 성구하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즐거움’이란 평안이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성공과 평안이 넘칩니다. 그리고 마음의 천국, 생환의 천국,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7.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는 죄를 회개한 자입니다. 사람이 복을 받으면 천지 만물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또한 인간적으로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보잘것없던 교회가 모였으니 그들을 통하여 세계 교회에 유익을 주는 복의 원천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에게는 앞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 길은 본래의인 가는 길이 아니라 죄에 빠졌던 자라도 구속함을 얻은 길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길을 가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자가 손을 대지 못합니다.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의 입에 노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 감사가 넘치는 찬송, 감사의 죄와악을 이긴 승리의 찬송, 기쁨을 부르는 찬미, 모든 일에 성공의 열매를 맺고 부르는 노래가 있고, 그 머리에 영영한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평안이 있고 기쁨과 탄식은 도 깨닫는 것입니다.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생환의 천국, 영원한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성도들은 모두 이런 복을 하나님께 성전물로 받기를 원합니다. ■



김성록 목사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마태복음 17:14-18)

“저희가 무리에 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어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통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다른 의사가 필요한 경우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일단 우리는 그동안 겪어왔던 경험과 지식과 감정에 기초해서 그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힘으로 해결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 의사나 다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 우리는 병원 가서 전문의를 찾습니다. 맹장염에 걸리면 외과의를, 눈에 이상이 생기면 안과의를 찾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어야 하는 경우에는 방사선 의사를, 눈, 귀, 코 등에 이상이 생기면 이비인후과 의사를 찾아 가며 됩니다. 비록 치료비가 비싸서 큰 부담이 되는 경우도 생기지만, 자녀 건강의 문제에 관련한 우리 대부분은 아마도 그 비용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때, 만약 좋은 의사를 만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다른 의사를 찾아가야 할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자녀 문제를 가지고 온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라함의 능력을 통해 고칠 수 있는 많은 병을 치료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고서 온전히 가라”고 하고 병을 고쳐서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제자들은 더러운 귀신과 모든 병을 내게 하는 권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권세를 행사하여 기적을 어떻게 일으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줄곧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가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7명의 제자들은 이 아버지와 아들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제자들

귀신들이 권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온 아버지의 아들인 참으로 좋은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최근 경험에 비추어볼 때, 아이를 고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큰 난해 가운데 당황했습니다.

나사. 사실 지금 상황에 비추어볼 때, 아이의 문제 앞에서 가장 간절하고 절실한 사람은 아이의 아버지뿐이겠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치지 못하는 현실을 볼 때, 얼마나 크게 낙심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그 그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마 17:15). 그의 소원은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했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귀신들려 간절하는 그 아이의 현실은 죄인들의 영적 실상을 보여 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위하여

가장 우선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학원공부와 입시공부를 뒷바라지해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구도자들에게로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망하게

할 뿐입니다. 세상에서 대우받은 후에는 영원한 형벌에 빠질

그런 자리로 인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최고의

선생이신 예수께로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경건의 능력을 가진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이 아이의 문제는 제자들의 현 상태에서는 풀 수 없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그 당혹스러운 상황을 앞에 놓고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르로 데려오라”(마 17:17)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신적인 사람들의 모습 앞에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려온 아이를 고치 주심으로 그 아버지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푸르셨으니 나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대부터 나으리라”(마 17:18). 이렇듯 불신적인 세상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안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것만 안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 마디에 발목을 하던 아이는 즉시 온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한 죄의 문제까지 십자가에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궁극적인 선생님이시요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사건 직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셔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에 따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친히 못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께서 병든 자들에 대하여 측은한 마음으로 고쳐

나다. 천국을 미리 맛보는 은혜의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되는 가정은 결코 존재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순종이 곧 능력있는 전도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 영원한 복을 받는 복된 일에 부모들이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예수님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모든 예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부모들의 의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산다면 그것 자체가 전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늘을 바라보며 역경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산다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그 기쁨의 이유를 궁금해 하며 먼저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능력있는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길뿐입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능력 안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려면 먼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자식들을 이 일을 행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는 한 겨서서만 믿는다면 이 산을 밀하여 여기서 거기로 옮기려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마 17:20). 거저께는 이 세상에 있는 씨앗들 중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바로 이 만만 믿음은 우리에게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은 99년도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새해의 첫 달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살펴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거저서 만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복된 회로 데리고 나오십시오. 온 식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영원한 평화와 안식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선교주의 특집

세계 최고의 인구증가를, 세계 최고의 AIDS 사망률, 계속되는 종족갈등과 가난과 질병, 전쟁과 주점들의 땅, 3천여 종족언어집단이 밀집되어 있는 대륙 아프리카, 오랜 식민지 생활의 고물이 종족분쟁과 가난의 고통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땅, 세상은 이 땅에서 발타르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세계가 구제기관들과 자선단체들을 통해서 수많은 구제 음식과 생활용품들, 그리고 수많은 의약품과 의료 인력, 물을 끌어낼 펌프들이 이 지역에 쏟아부어지고 있으나 세상은 이 모든 열정들이 오래배를 즐기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교통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 땅의 대다수 사람들은 구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어디서 구호품을 나누어 준다고 해도 소

식을 들을 매체가 없으므로 알지 못한 채 굶고 있다. 그렇다면, 만일 이 모든 구호품들이 아프리카에서 선용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골고루 전달된다면, 아프리카의 고통은 끝날 것인가? 결코 그렇지 못하다.

아프리카 기근의 뿌리는 전리의 기근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지극한 결핍은 전리만이 가져다 주는 진정한 소망이 없는 데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고통스런 전쟁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데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에게 당장 절실한 것은 음식을 위한 구제와 치료에 몰입했으나, 그것이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모든 종류의 구제는 오히려 사람과 국가를 망가트리

는 독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에 따라 교회는 아프리카 선교에 총력을 기울일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한 결실을 거두고 있다. 특히 교회는 '현지인을 통한 현지인 선교', '현지인 지도자의 변화와 양육을 통한 효과적 선교'라는 매우 중대한 과제를 위해 계속적인 준비와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이 성경의 역사학과 우리들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갈망 하므로 기도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이루어져 왔던 아프리카 선교의 면모들을 살펴본다.

에즈라 아카데미 성경학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 출신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한 각지의 헌신자들이 모여 성경 교육과 훈련을 받는 기관으로서 이미 12명 이상의 교회 개척자들을 배출한 성경학교이다. 우리 교회의 지원을 통해 이 학교에서 일하는 교수요원은 모세, 나바드, 사무엘, 엘리제이, 훌, 사무엘, 율스, 알비노, 코리 등 총 9명이다. 이 학교를 통해서 아프리카를 삼키려 하는 모슬렘이 저지될 뿐 아니라, 전리의 사후와 신자로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령들이 수없이 배출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가 요청된다.

성경학교 교사들



복음전도대

에즈라 아카데미 출신 사역자들이 출신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자 할 때, 그 지역을 함께 방문하여 전도 활동에 보이는 복음의 전위부대이다. 이 전도대는 3명의 그룹으로 나뉘어 각 그룹의 그룹장 및 부그룹장을 중심으로 전도의 정병으로 힘써 사역하고 있다. 이 뛰어난 전도 책임자들은 자기아, 다나

앨, 아브라함, 매트릭, 부투루, 니약 등 6명이다. 이들에게 복음의 전신갑주에 입혀져 도록 기도하,



복음의 전위부대인 복음전도대원들

아·프·리·카·선·교



핑신도지도자학교

핑신도지도자학교 교사들



정규 성경학교 교육센터 겸 다년간한 교육을 통해 핑신도 지도자로 섬기기를 원하는 이들을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이 학교에서는 유심, 로만, 세비, 알리슨, 모리스, 무가 등 6명의 헌신된 일꾼들이 사역하고 있다.

실천신학원

목회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사무엘, 엔디슨, 아이만 등 사구의 실력은 은회신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현지 사역자들을 제교육시키는 기관이다.



실천신학원 교수

원주민 교회들

원주민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에즈라 아카데미 성경학교에서 소정의 교육을 다친 후,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 개교회를 개척한 일꾼들



에 의해서 이미 12개의 교회들이 세워졌다. 연합교회(윌리엄), 누베르족교회(피터 G), 잔디족교회(마빈), 자발아올리아교회(알렉산드리아), 메라워교회(가브리엘), 신자교회(에인스), 메다니교회(이삭), 카르통교회(피터 K), 카라마교회(패트릭), 포트수단교회(콤보), 소바교회(데이비드), 주리예프교회(세임스) 등이 새롭게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아름다운 교회들이다. 이 교회들과 사역자들을 위한 성도들의 구체적인 기도들이 절실하다.

특수선교

유치원, 교사교육, 성인교육, 언어교육, 소년원 사역 등을 담당하는 선교기관으로서 그레이스 매러리, 마리아, 이페르, 나질라, 피터, 리차드, 토마스투루, 아브라함, 마호트 등이 사역하고 있다. 특히 아랍어를 가르치는 언어교육원은 수단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아 정식 언어교육기관으로 세워짐으로 효과적 사역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선교사들이 들어가는 이들이 이 기관을 통해 정식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수선교 사역자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 16:15)

세계적으로 복음의 불모지가 몇 곳 있다. 회교권, 불교권, 북한, 일본 등이 바로 그곳이다. 그러나 메를을 수 없는 불모지가 한 곳 더 있다. 바로 인도이다. 우리 청년1부에서는 1월 28일부터 2월 8일까지 이곳 인도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된다. 왜 인도로 가는가?

"그의 명령은 '가라'였지만 우리는 몸과 온사와 기도와 영향력에 있어서 그저 머물고 있다. 그는 땅까지 이르러 중언이 되기를 부탁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99%는 지금껏 그곳 땅에서 맴돌고 있다." - 로버트 새비지

인도는 복음이 전해지지 매우 힘든 곳이지만 전략적으로 무척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가야 한다.

인도는 UN의 예측에 따르면 21세기 초에 중국을 누르고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이 될 것이다. 현재 10억을 자랑하지만 다음 세기에는 그 두 배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인도는 머지않아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셈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그리스도인의 수가 3%에

단기선교

인도로 떠나면서



이승 학(목사, 청년부 지도)

불과하다. 복음이 전해진 지 거의 2000년이 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여전히 복음의 암흑지대이다. 이 대륙은 대부분 힌두교에 의해 점령당하고 있다. 이 대륙은 세계에서 약한 영이 가장 크게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강력한 진지이다. 현재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뉴에이저 운동의 모든 근원도 힌두교에 있다. 깨달음, 영적 진화, 환경, 초월명상, 제3의 눈 등의 유행어와 라즈니쉬와 크리슈나무르티와 같은 여러 구루(영적 스승)들의 저술과 강연을 통해 전 세계 지성인들을 유혹

하고 있다.

인도는 사실상 복음 전파가 허용되어 있다. 그러나 복음 전파가 가장 어려운 지역이다. 힌두교인들은 대단한 영적 교만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독교를 매우 하등한 종교로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루 중의 하나로 여기거나 여러 신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인도의 3% 내외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도 거의 죽어 있는 상태이다. 반면 힌두교의 구루들은 신비한 능력과 각종 영적인 능력을 행사하면서 10억의 사람들을 사탄에게로 이끌고 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 그를 의지하면 성령님을 통해 이끌어 주실 믿고 인도로 떠난다. 이번 선교는 원금 지방의 찬디가르를 거점으로 삼아 시크교의 본산인 파티알라에서 영적 싸움을 한다. 감동한 장로님 14명과 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꽃을 뿜는 힌두교와 시크교의 악한 영에게 승리하도록 중보 기도를 부탁한다.

"천국의 시민이 된 순간 나는 지상에서 타향(외국) 사람이 되었다. '해의 선교사'라는 말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유감스럽다. 우리는 모두 선교사이며, 순례자요, 이 세상에서 타향 사람이다." - T. J. 바흐

국·내·외·국·인·선·교·부

주께서 시작하셨고 또한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거자씨에서 이제 세들이 깃들 만한 나무로

어떻게 시작되었나
3년 전 교회 기도원에서 전화를 걸고 있던 스리랑카인 두 명을 본 교회 집사 두 분이 교회로 인도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사역이 시작되었다. 그 동안은 세신자부와 영예예배부에서 이들을 이끌어 주기도 했다. 지금은 이들을 모체로 하여 국내외국인선교부(이차외선부)가 조직됐고 현재는 선교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당시 두 명의 스리랑카인은 아지트와 말리로 작년 10월 30일에 갈릴라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외선부 현황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는 평균적으로 외국인 80명과 봉사자 50명 정도가 출석하고 있다. 매 주일 오전 9시부터 10시 45분까지 본당 지하 1층 이연홀에서 집회를 갖고, 3부예배에 참석한다. 예배 후에는 선교관 지하 2층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한다. 현재 나오는 이들은 몽골, 중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7개국 출신이며 향후 미얀마,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온 외국인들도 전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집회 내용은
찬양, 기도, 말씀 선포 그리고 성경 공부로 이어지며, 현재는 미흡하나마 스리랑카어, 인도네시아어, 영어, 중국어, 몽골어 등으로 동시 통역하고 있다. 곧 힌두어(인도어)와 방글라데시어로도 통역할 계획이다.

전도와 심방은 어떻게 하나



외국인 근로자 전도는 국내 전도와는 성격이 달라서 애로점이 많다. 특히 이들은 평생 모슬렘, 불교, 힌두교, 무신론 등에 익숙해진 사람들이라서 전도 방식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한다. 처음 만나

서부터 '예수 구원!' 하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심한 거부감을 갖기도 한다. 따라서 전도하는 사람이 그들로부터 신뢰감을 얻을 수 있도록 꾸준히 만나 대화하고 그들의 필요를 살피 주는 일이 우선 필요하다. 이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 일대에 있는 영세 공장들이다. 외선부 봉사자들은 주중에 그들을 방문해서 그들과 대화하고 또 성경을 가르친다. 그리고 몇 개월이고 만나다보면 그들의 정경심도 완고하고 기독교에 대한 관심도 생겨 교회에 자발적으로 나오게 된다. 그렇게 해서 전도된 외국인인 작년에만 100명이 훨씬 넘는다. 그런데 이 대부분은 야간작업과 주말작업을 하기 때문에 주일 집회 참석률은 60퍼센트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어떤 행사를 하나



△ 지난 신년행사 행사에서 성경을 하고 있는 외선부 자제들의 모습.

정기적인 주일 집회 외에 나라별로 영성 훈련을 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찾아가 전도 모임을 가질 계획도 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에는 교육부서처럼 축하 행사를 갖기도 한다. 지금까지 2회의 여름 수련회를 가졌으며, 올해는 처음으로 겨울 수련회를 실시한다(기간: 1999. 2. 14-16, 장소: 기도원).

향후 계획



△ 지난 여름 물결 단기선교팀은 충현교회 출신인 물결 형제 가정을 방문하여 복음을 증거했다.

작년과 올해의 단기선교는 외선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충현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하다가 본교로 돌아간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년에만 50여명이나 된다. 그들이 돌아간 스리랑카, 인도, 방글라데시, 중국, 몽골로 단기선교팀을 파견해 이미 복음을 전한 그들을 확고히 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을 복음화 하는 것이 주효하다. 특히 현재는 한국에 온 외국인들 가운데 일꾼을 뽑아 신학을 가르치고 본교에 들어가 자생 교회를 설립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좀 더 내실 있는 신앙 교육을 펼칠 계획이다. 정기 출석인원 20명이 되는 나라는 자체적으로(즉 그 나라 말고, 그 나라 사정에 의해) 집회를 갖고 또 각종 교육 교재를 그 나라 말로 번역해 활용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기도 제목

1. 외선부 봉사자들이 성령 충만으로 일할 수 있도록
2. 외국인 형제들이 한국에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3. 본국으로 돌아간 형제들이 신앙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4. 단기선교팀 사역과 연합해 각 나라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5. 신학을 배울 수 있는 외국인 형제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 매 주일 오전 9시부터 이연홀에서는 국내외국인선교부 집회가 있다. 설교를 들은 외국인 형제들의 태도가 진지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국내외국인선교부 방글라데시팀 최초의 수세자(水洗者) 탄생

지난 1월 19일 모슬렘 출신 방글라데시인 형제 한 명이 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국내외국인선교부(외선부)에 출석하는 수비털(가명)이 한국을 떠나기 전 카타란 결단을 내린 것이다.
세례 행한 때엔 공부에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질문 받자 수비털은 어색한 한국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의 고백은 듣는 이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모슬렘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슬람교에서는 알라에 대한 최대의 신성모독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평생 모슬렘으로 살아온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이다.
방글라데시는 국민 대부분이 모슬렘이며 이슬람 신앙은 생활 그 자체이다. 수비털 역시 한국에 온 뒤 러 오기 전까지는 의심할 바 없는 모슬렘이었다. 그러나 그가 한국에 와서 8년 동안 체류하고, 작년 봄에 있었던 교회에서의 전도제복행사 때 복음을 처음 듣게 됐다. 17교구와 외선부가 주최한 그 행사에 다수의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난생 처음 교회에 왔는데, 수비털은 그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 행사를 계

기로 외선부 봉사자들이 주중에 정기적으로 그들의 공장에 심방을 갔고, 나중에는 성경공부와 찬양, 그리고 천교의 시간을 갖게 됐다. 그러나 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고 심방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 나온 지 1년이 채 못되어 세례 받기를 자원한 수비털의 결단은 진정한 용기 있는 모습이었다.
세례식 후 그에게 물어 보았다. "수비털, 방글라데시로 돌아가서 자신이 크리스천이 됐음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예." "수비털 어머니와 가족들이 슬퍼하고 또 화내지 않을까요?" "그럴 거예요. 하지만 나 각오했어요." 이미 단단히 마음먹은 듯 수비털은 확고하게 말했다. 그러나 이곳에서 신앙 생활을 하다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간 형제 가운데 집에서 쫓겨난 사례가 얼마 전 확인됐다. 이제 수비털은 세례까지 받은 크리스천으로서 본인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심한 시련을 고향 방글라데시에서 겪게 될 수도 있다. 그가 끝까지 인내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도록 충현 교우들이 그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한다.

단기선교

스리랑카

기 간: 1999. 1. 27-2. 6(10박 11일)
참석자: 김영수 전도, 이מש수 목사, 송영선 전도사, 이병대, 구영자, 이부용, 오경희, 추진회, 오용진, 윤철중, 신지수

1. 단기선교 방향
① 핵심적인 복음 증거를 폭넓게 실시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사역한다. ② 스리랑카의 문화 및 상황을 조사, 연구하여 적절한 선교전략 수립에 활용한다. ③ 외국인 근로자 중 핵심일꾼을 발굴, 양육하여 교회 개척의 기초를 형성한다.
2. 사역 전략
① 핵심일꾼의 가정을 2인 1조로 방문하여 양육 및 그 가정을 중심으로 선교 전도. ② 국내외국인선교부에 출석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가정을 방문, 전도. ③ 콜롬보대학에서의 노방전도를 통한 집중전도대상(직업 인증) 확보. ④ 교회 개척의 가능성 탐색.
3. 기도제목
① 스리랑카 단기선교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진행되도록! ② 복음을 전하는 스리랑카인들의 마음이 열려 복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③ 스리랑카 단원들 중에서 신실한 선교사 후보생들과 선교 후원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④ 이번 단기선교 사역을 통하여 현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멤버들이 세워지도록!

해마다 연초가 되면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는 교사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다. 교회 안에서 행방이 묘연한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교회에 등록된 교인의 자녀 중 고등학생의 나이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모두 2,500명이나 된다. 그중에서 고등부에 한 번이라도 출석한 아이들은 1,238명이다. 그리고 주일에 정기적으로 교회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은 그 중의 절반이 못되는 600명 정도이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어디로 갔을 까? 해마다 반복되는 질문이다.

문제는 잃어버린 아이들의 상당수가 학교 공부 부담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고등부에 올라오는 순간 고등학교 기간은 열심히 공부만 할 것이니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결심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교회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신념이다. 그런데 공부 때문에 신앙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학교 성적 앞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부모들의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아프다. 심지어 교회의 중직자 중에도 자녀의 교육 문제 때문에 교회학교 선생님의 마음에 못질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아서

조문 찬(목사, 고등부 지도)

해마다 연초가 되면 교사들이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유

결단하는 부모 아래서 믿음의 인물되라나



정신여고 돌로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의 성적과 신앙교육 문제를 타협하는 모습은 모순된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것을 주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자

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천직기적인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울지도 아니함도다 내가 차든지 더울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가질 것을 촉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세상의 그러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심자기를 지는 자요 참된 주님의 사람이 아닐까.

잠원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것이다. 아직도 지들의 타의든 교회학교를 떠나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이들을 찾고 있는 주님의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전진하게 올라 피진 사랑의 종소리

핸드벨라이어

창단 10주년 가족음악회



제번 날씨가 쌀쌀한 토요일 오후 갈릴리움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창단 10주년 가족음악회'라는 이름으로 핸드벨라이어의 맑고 고운 종소리가 갈릴리움을 가득 채웠다. 가족음악회라는 그런저런 대원들의 가족과 친구, 친지가 청중의 대부분을 이루었다. 반짝이는 그 작은 벨을 제법들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모습이 벨소리와 함께 울동처럼 보였다. 핸드벨은 들리는 소리뿐만 아니라 대원들의 울동같은 움직임에도 눈이 가는 독특한 매력이었다.

핸드벨 연주자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연주이다. 흰 장갑을 끼고 이리저리 바쁘게 자기 음에 제 박자를 지켜 연주를 하려면 서로에 대한 일체감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제는 눈빛만 봐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고 한다. 창단때부터 지금까지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핸드벨라이어의 대상으로 삼기고 계시는 정경자 권사님께서 핸드벨의 유래와 그간의 핸드벨 팀의 활동에 대하여 소개를 하셨다. 상세한 설명과 애정 어린 말씀 가운데서 핸드벨라이어팀을 향한 권사님의 수고와 사랑을 엿볼 수 있었다.

89년 처음 생긴 핸드벨라이어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생 27명을 선발하여 시작되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창단 멤버 중에는 결혼하여 아이엄마가 된 윗고랑(2)도 있다. 아가씨만 단원인 임희연 단원은 핸드벨팀의 자랑이며 큰단원이라고 한다. 또한 국내에 몇 안되는 핸드벨 지휘자로 매수일 첫 차를 타고 대전에서부터 올라와 하루종일 섬기시는 송재일 지휘자의 수고와 열심이 숨겨져 있다. 그 작은 국내, 국제 대회에 참가하여 실력을 다지고 98년에는 고상진배들이 모여 핸드벨로 완송가를 연주한 창당대회를 제작하기도 했다. 작년부터는 5부제제를 만들었고 있다. 지금은 초등 6학년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대원들이 있다. 핸드벨 연주가를 소개드리자면 매 에세이집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하며 이제 10년 넘게 사용되어 오며 된 악기를 교제하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성도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이수영 기자)

11교구 동계 농어촌전도부 다녀와서 성령이 함께하신 전도집회

김경철

(집사, 11교구, 바울전도회장)



할렐루야!
한 겨울에 봄날 같은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더니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동계 농어촌전도를 떠나려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운 날씨로 변해있었습니다.
혹시 가는 길에 눈이랑도 평평 쏟아지던 여짜나 하는 염려는 주님께 맡겨놓고 1월 11교구 동계 농어촌전도대의 일원으로 의료봉사를 맡게 된 우리 부부와 대원들은 지도목사이신 박경환 목사님과 교구장이신 정운성 장로님 그리고 바쿠한 전도대장님의 인솔 아래 산 높고 물 맑은 강원도 영월군 남면에 있는 복광교회로 향하였습니다. 도착한 복광교회는 동강을 끼고 조그맣고 아름답게 세워져 있었고 산비탈에는 60여 가구가 웅크려져 모여 사는 전형적인 강원도의 농촌마을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치료받은 모든 분들의 마음에
복음이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복광교회의 성도는 어른이 9명이고 어린이가 10명으로 젊은 안영국 전도사님이 사역하시고 계셨습니다. 전도대원들은 도착하여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린 후에 여장을 풀고 쉬지도 않고 준비해 간 선물을 가지고 곧바로 한 집, 한 집 찾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저녁 시간에 있을 부흥회에 주인들을 초대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첫날 부흥회에는 37명이, 둘째날에는 48명이 와서 교회를 가득 채운 가운데 목사님의 성령 충만하시고 분광이 뜨거워 말씀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주민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하고도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료봉사를 맡은 우리 부부는 전도사님의 사택에서 약하나마 준비하여 가지고 간 의료기와 약품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어린이로부터 노인분들까지 치료를 받기 원하는 분들에게 치료를 하여 드리며 육신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치료받으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복음이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게 여겨시는 주님께서 이번 동계 농어촌전도를 통하여 복광교회에 받을 디디었던 모든 사람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세우신 복광교회가 날로 부흥 성장하는 것을 기도하옵나니. 그동안 2박 3일의 짧은 기간이 나마 우리 부부가 병행 일이나 가정 일을 접어들어 전도대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마하나마 의료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영어교육부 전사의 집을 다녀와서

친교 나누며 함께 하날라 소망

박 찬 영(영어교육부)



16일 영어교육부에서는 '친사의 집'을 방문했다. 친사의 집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데, 약 42평의 땅에 둘러싸여 다른 이들이 있는 곳이다. 영어교육부에서는 약 40명이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친교하기 정경대회를 하였다. 예배를 시작하자 모두 모여서 함께 '예수께로 가라'를 찬양하는데 정말 우리들 불러 주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그리고 우리 안에 넘치게 함께 나누는 분임을 느꼈다. 영어예배 초동부 친구들이 준비한 율동을 열심히 따라하는 뇌성마비 미영이의 영혼이 너무 아름다웠다.

친교하기 정경대회는 친사의 집 전도와 함께 영어에 대한 친구들이 손을 잡고 짝을 이뤄 사랑, 순종, 신자가 되는 좋은 정경대회를 맡으며 친교하기와 친한 곳까지 가는 계기이다. 특별한 다른 사람보다 저야 할 신자가 무거운 사람들,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더 축복받은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많은 것을 배우며 체험할 수 있게.

지체들 소식

지체들 소식

영어부
풍성한 결실 위한 수련회 준비

2월 25일, 2월 26일 겨울 성경학교가 열릴 예정으로 지난 주일 교사들이 모여 지체내의 성경학교를 돌아보고 자료를 점검해 보고 워크북을 작성했다. 예전보다 더 잘 가르치기를 원하는 마음에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했다. 시작하는 날까지 기도 중이라고 몸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워크북도 더 예쁘게 꾸미기 위해 많이 신경을 썼다. 이번 겨울성경학교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란 주제로 한영준 전도사님의 말씀으로 준비되는데 조금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아기에게 필요하고 엄마, 아빠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영어부의 모든이들의 준비로 이번 성경학교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신히 믿는다. (송혜경 통신원)

유지부
나는 나는 자랄때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자라고 싶은 어린 어린이들 손들어 보세!" 전도사님의 말씀에 고사리 같은 손들이 번쩍번쩍 올라갔습니다. 유치부 어린이들이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아이로 자라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어린이로 자라라고 싶은 어린이는 누구나 환영합니다. 유치부 문을 두드리 주세요. (조혜경 통신원)

초등부
말씀을 사랑하는 어린이

초등부에서는 1월 25일, 26일 이를 동안 겨울 성경학교를 열게 됩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어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순례식 전도사님의 말씀과 70여명의 어린이들이 준비하는 시청각 교육 영화 상영과 인형극을 비롯하여 공동체 훈련인 아나와 내가 우리 친구들의 장기 자랑 등이 있습니다. 초등부는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 어린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부서입니다. 아직 초등부에 나오지 않는 어린이가 있으면 겨울 성경 학교에 와서 하나님께 말씀도 배우고 친구들과 사귀며 열심히 초등부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우리 예배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이미숙 통신원)

중등1부
수련회 위해
부모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겨울수련회를 1월 25일(일)·27(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충헌기도원에서 개최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체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요. 아주아주 특별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시기보다 중요한 중등1부 믿음의 시간을 사모하는 친구들이 다 참가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는 기도해 주세요. (김영희 통신원)

청년2부
사랑, 섬김, 나눔 풍성한 충헌의 30대

금년 들어 로마서 성경공부를 통해서 청년2부 회원들이 영적으로 더욱 풍성해지고 있으며, 말씀과 교제를 사모하고

봉사하기를 원하는 많은 신임회원들이 청년2부를 찾고 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지 않는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연초부터 고사리되게 매추리 드림계 진행되고 있으며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나눔도 풍성한 청년2부로 만들겠다는 열려회장(서수진)의 포부와 결심도 대단한 것 같다. 요즘은 앞으로 있을 겨울수련회와 사육어 총동원 전도, 예산식을 놓고 기도도 준비하고 있다. 특별히, 99년부터 새롭게 시도해 보는 예산식은 각 조마다 음식을 한가지씩 만들면서 와서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썰렁한 IMF를 훈훈하게 바꿀 수 있는 게기가 될 것 같다. (백영자 통신원)

소망부
신년인사

매년 1월 첫 주일엔 소망부 70여명의 교사들이 교회 한복각실에 어른들 앞에 나가서 새해를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을 불러 어른들 마음에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금년 첫 주일에 30여분의 어른들께서 소망부에 등록하셨습니다. 그들보다 70이 넘는 이들을 중 50여분이 장년부에 개신 것 같은데 소망부도 오시기를 주지하고 갓신 것 같습니다. 또 보시면 후회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소망부에서 봉사하는 것에 참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망부에 발령말이 왔다가 같이 놀아가는 것 같다고 다른 부서로 가기도 하지만 그것은 신앙의 진정한 의미와 기쁨을 잘못 알고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준비 마치고 해놓고 마지막 구원 열차 타신 이분들의 안내자가 되어 봉사하는 것 얼마나 보람있고 감사한 일인지요. 충헌교회 소망부, 어디든지 가서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형주 통신원)

사랑부
성경 및 성경이야기대회 열었다!

과별 지체별이 성경과 성경이야기 대회가 있었다. 어떤 과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한 성경이야기를 했고, 어떤 과는 하나님의 창조를, 즉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땅 지기다가 사람까지도, 아니 나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는 것을 강조한 내용도 있었고, 예수님을 만났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개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의 변화된 그의 모습을 강조한 내용.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림의 의미를 강조한 내용 등 여러 주제를 가지고 나와서 성경 이야기와 성경을 했다. 사실, 모든 내용은 우리가 귀에 막히게 들었던 이야기다. 하지만 이 내용들이 여기서 막을 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마음 속에 살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영자 통신원)

새가족부
아내의 아름다운 비밀

어릴 때부터 새가족을 다녔던 여자인이 자라서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 이후의 삶이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기도 속에 아픔은 복음화 되어 갔고 이제는 남편도 성도가 되었다. 오늘날 리카에게 재료를 부지런히 준비하여 정해진 곳에 이르러 장사할 제비를 하는 두 부부의 존엄함과 동화가 분주하다. 아내인 이는 깨끗한 새 돈이 들어오면 다른 주머니에

넣는다. 그것이 실업이다. 수입의 실업조가 아니라 그날 들어오는 새 돈은 모두 실업조 주머니에 들어간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날 새 돈이 만원이면, 수입이 십만원이 되고 새 돈이 오천원 들어오면 수입이 오만원이 된다. 같이 장사하는 남편도 모르는 아내만의 비밀이 이 신묘한데 있다. 역경 속에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시는 주님을 보고 삶의 지혜를 얻어 이제는 격정도 근심도 없이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이 또 어떤 모습으로 함께하실까 하는 기대로 하루하루를 맞는다. 성도가 된 남편과 함께 새가족부에 참석하고 있는 이 성도의 삶을 전하는 담임 맡은 김사모와 들은 교사 몇몇이 똑같이 가슴이 저려움을 느꼈다. (한숙정 통신원)

1교구
복음 선물하는 주님 일꾼으로 성장 다짐

그동안 미루어 오던 전도회 연례 정기회에 따라 10명이나 에스디로 올라가 각 정단별 후디아전도회가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세 일꾼들도 채워졌다. 교구모임의 통해 교회와 목회적도 영혼을 구원하는 준비와 기도를 최선을 다할 것을 의미 깊게 들었다. 외롭고 비천한 수가성의 어린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선물로 받아 예 2의 새로운 삶을 누린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부복, 아내로, 어머니로, 가까운 이웃으로 복음을 선물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되기를 마음 속 깊이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마리아인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더듬어 보면서, (임동태 통신원)

9교구
이름디온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세워지기를

정지기훈련을 마치고
믿음의 역사가
드러난 밤

송한 창(장로, 교육훈련원 부원장)

먼저 1999년의 새해를 믿음과 소망으로 열게 하시고 또 정지기훈련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불붙게 하여 주시어 '새 언약의 일꾼'으로 힘있게 세워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정제대로 해왔던 정지기훈련이지만 올해의 정지기훈련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골 4:1) 충헌의 정지기들이 말씀에 걸친다 심령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와 십자가 밑에 무릎 꿇는 모습에서 살아 있는 충헌교회를 세우는 몸으로 늘 수 있었을 것입니다. 1월 13일과 14일 밤은 분당 1, 2층을 막 메운 찬란한 영기와 피곤한 몸을 무릎 꿇고 장사할 목사의 열정적인 강이 가 합하여져서 은혜가 충만한 화환과 결단의 장이었으며 믿음의 역사가 밝히 드러난 밤이었습니다.

교구모임때 새로 오신 분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다. 이번 주에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은 멀리 마산에서 오셨다. 우리 교회가 서울에서 유명했(?) 교회 중의 하나인 십만명이 되고 새 돈이 오천원 들어오면 수입이 오만원이 된다. 같이 장사하는 남편도 모르는 아내만의 비밀이 이 신묘한데 있다. 역경 속에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시는 주님을 보고 삶의 지혜를 얻어 이제는 격정도 근심도 없이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이 또 어떤 모습으로 함께하실까 하는 기대로 하루하루를 맞는다. 성도가 된 남편과 함께 새가족부에 참석하고 있는 이 성도의 삶을 전하는 담임 맡은 김사모와 들은 교사 몇몇이 똑같이 가슴이 저려움을 느꼈다. (한숙정 통신원)

14교구
주와 같이 갈는 것 즐거움 일어난가

오늘도 교구모임을 위해 교육원 301호로 모였습니다. 서로서로 인사를 하며 찬송으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교구모임장소가 비좁은 탓에 다음 주일부터는 더 많은 식구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역 구본 없이 오신 차례대로 모여서 앞으로부터 앉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1지역부터 시작하고 각 지역 일꾼들이 또한 각 전도회원들이 차례로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교구모임이 자체에서 적극적인 참여의 모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추억이 하나되고 또한 교구가 하나되며 충헌교회가 하나되어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걸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애나 통신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었고도 부족할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놀림과도, 말씀에 힘입어 주님의 일을 바로 경영하기를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써 버리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르겠사오니 우리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원을 주주처럼 인도하는 주님의 도구를 삼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복음만을,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사 / 특강칼럼

● 알림

1. 선교주일 안내 /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I, II, III, IV, V부예배에서 선교헌금을 작정하여 드립니다.
2. 구제헌금 안내 / 31일(다음주) I, II, III, IV, V부예배에서 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99년도 제1차 학습 - 세례식 신청 안내 / 학습 및 세례, 개례, 입교, 유아세례를 받을 성도는 2월 7일까지 담당 교구 교역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4부예배 안내위원회 조직 안내 / 우리 교회 서리집사 중 4부예배 안내위원으로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 및 신청 / 주일 - 예배위원회실(구내재와 214번)
5. 만민일 신심대원 모집 / 클레식기타 연주 가능한 성도들 중 함께 봉사할 신심대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노은숙 간사(548-0823), 이연순 집사(3463-0434)
- 도임
1. 장로 회오세벽기도회 / 26일(화) 새벽기도회 후,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회 월오세벽기도회 / 25일(월) 새벽기도회 후, 교육관 109호
3. 주일오후기도회 / 오늘 15:00-16:30, 강일리회
4. 설립인전도회 월례회 / 오늘 16:00, 설립인전도회실
5. 설립인전도회 목요일기도회 / 28일(목) 새벽기도회 후, 설립인전도회실
6. 권사회 제2차 월례회 / 27일(수) 1부예배 후, 사무실

● 남녀전도회

1. 바. 월 12 / 오늘 교구모임 후, 교육관 312호
2. 베드로 10 / 30일(토) 18:00, 옥동집
- 오후 14 / 오늘 19:00, 정동영 집사대(642-9645)
- 별세
1. 이재룡 원로사신(김희자 권사 모친, 6교구 우성4차구) / 14일 별세, 16일 장례
2. 변영래 성도(신애성 성도 모, 9교구 중화2구역) / 19일 별세, 21일 장례
3. 홍태범 성도(윤정옥 부친 할, 15교구 봉천8구역) / 21일 별세, 23일 장례
- 주수 및 전회번호 변경
1. 김진섭 집사, 백순자 집사 / 서교구 방배동 938-13, 전화: 3486-2706

사진 찍으세요

99년도 신임 남녀 서리집사들에서는 제직사전침에 실릴 사진을 1월 중으로 찍으시기 바랍니다.
● 찍는 곳 : 홍보실(선교관 408호)
● 찍는 때 : 주일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
수요일 낮 12시 30분-오후 7시, 금요일 오후 6시-7시

세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98	장지선	1	청년1부	김분연(1)	111	공요순	14	에스타	124	한재복	19	에마다부		
99	안광선	2	청년2부		112	김희조	19	대학부	125	홍은숙	19	에마다부		
100	이희원	1	청년3부		113	오정옥	19	대학부	126	전병욱	5	소망부	전삼진(1)	
101	박혜은	3	대학부		114	최문선	19	대학부	127	양승숙	5	소망부	전삼진(1)	
102	장혜영	6	대학부		115	김희연	19	대학부	128	임유희	13	베드로	이경재(3)	
103	이현진	15	청년2부	신성숙(16)	116	김은정	19	대학부	129	박주영	19	대학부	전수현(1)	
104	김현진	19	청년1부		117	성혜비	19	대학부	130	지경화	8	마리아		
105	한정주	19	대학부		118	김희정	19	대학부	131	김성희	4	대학부		
106	신대선	19	대학부		119	김현희	19	대학부	132	손희화	5	마리아		
107	신자겸	19	대학부		120	문지은	19	청년1부	133	김영숙	7	루디아		
108	이종필	19	대학부		121	장새라	19	청년2부	134	이근규	8	바. 율		
109	신한봉	19	대학부	서명호(12)	122	이은실	8	청년2부	135	송진경	8	요한		
110	임광현	19	대학부		123	김성국	19	청년2부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세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독장칼럼

자족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차 신득(당로, 4교구)

1998년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가혹한 한 해가 아니었다. 생각할 때마다, 국가적으로 6. 25 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 경제는 자립할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하고 있고 평소 알지도 못했던 IMF라는 국제기구의 지시를 받아야만 하는 수치를 감수해야만 하게 되었습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었고 수많은 사업체가 부도로 쓰러졌고 일부 가정들은 파산에 이르고 젊은이들은 직장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등 상상을 넘어선 어려움들이 계속 밀려들었다.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 꼴이 되었나 그 원인을 가리기 위해 많은 학자들과 지식인은 물론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국회에서도 경제청문회를 열어 그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국민 대다수의 마음 속에서는 이것이 어느 한 두 사람이 일개 기관만의 책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그 동안 방탕, 사치, 향락, 물질만능주의에 빠져 있었던 데도 원인

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입장에서 한 가족에서 더 큰 봉송이로 치지 않고 이 정도로나마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이 힘든 시절이 언제 끝날 것인가를 고대하는 결과주의적 성급함을 버리고 물질 문제를 앞에 놓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자신에게 던져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생활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물질 사용에 있어서 성경이 주는 교훈은 자족과 절제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반부 귀한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족할 줄 알았던 바울과 같이 다사다난한을 추구하는 욕심을 버리고 있는 것으로 늘 만족해 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주신 물건을 주인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청지기이기에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절제하며 겸손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주셨다면 이는 남을 위해 하고나니 원하시는 곳에 쓸 수 있도록 맡겨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충현 증보의 창

- 1999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천국국민을 양성하는 교회,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굳게 세워 주소서.
- 김창인 원로목사와 김성관 위임목사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동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 선교사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잘 증거하게 하시며, 선교주제회 기점으로 충현의 성도들은 보배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더욱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은 99년도 천가비 충현 소속장학생들을 선발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천국 일꾼을 양성하게 하소서.
- 각 부서별로 진행되는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하여 심령이 새 힘을 얻어 한해 동안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소서.
- 2월 3일-6일까지 있을 제2회 전국 찬양대 지도자 강습회를 통해 주님의 뜻에 따라 헌신하고 더욱 빛나는 영혼의 찬양대가 되게 하소서.
- 2월 22일-24일에 진행될 제1회 목회자간기세미나에 전국의 목회자들이 많이 참석하여 복음의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얻게 하소서.

1월 31일 예배 전 찬양곡목 및 연주자

- 2부예배
오르간 김준경
(임마누엘찬양대 오르가니스트)
(찬양곡목)
· 주 예수 우리 구하러(찬 308장)
· 감사하라
· 어찌제나 오늘이나(찬 133장)
- 3부예배
오르간 조희영
(할렐루야찬양대 오르가니스트)
(찬양곡목)
· 사후열 바버의 아다지오
· 예수는 나의 힘이요(찬 93장)
· 주 예수 이름 높이여(찬 37장)
- 4부예배
오르간 최현실
(이만찬양대 오르가니스트)
(찬양곡목)
· 만유의 주께
· 땅송가
· 십자가로 가까이
·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 5부예배
오르간 한경숙
(별영찬양대 오르가니스트)
(찬양곡목)
·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 하나님의 찬양하
· 영광의 찬양
· 내 주를 가까이

- 원로목사 김창인
-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이종성 김희수 이종대 박정환 김동석 김필수 전형준 김재철 이승수 정갑진 정현민 조문환 조철수 김동하 차병준 김병태 김인식 김상현 서광진 이승학 정혜성 박천호 이준경
- 협동목사 윤영택 박형용 노봉민
- 선교사 이준교 안석열 김영대
- 감사사 박인기 열현일
- 원로전도사 이두만 최순복
- 영도전도사 정영희 현정남 장영자 임재주 김경자 배옥인 최희재 손미희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오정숙 오인숙 김옥순 한영준 박종화 김영숙 김복순 최영란 김진석
- 교정전도사 박양덕
- 교육전도사 한승일 김경희 송원철 김창중 조재민 하용구 이후찬 김병우 이종태 김옥식 김인숙
- 선교전도사 정은희 배대양
- 평신도선교사 유봉재 김형선 이기성 김철영 고은빈 하요셉